메리츠 금융 Daily

2020. 11. 26

meritz 메리츠증권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News

한은 오늘 금통위, 금리동결 관측…성장률 수정 촉각 — 뉴시스

한국은행 금통위가 26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 현재 연 0.50%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
코로나19 재확산 속 한은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지 여부에도 관심....

은행권,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소진 임박…하나銀, 내달1일 중단 — 뉴스1

주요 시중은행의 1차 이차보전 대출이 거의 소진....SC제일은행이 9월 한도 소진에 따라 이차보전 대출 접수를 마감.... 하나은행이 내달 1일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
주요 5대 시중은행이 24일까지 집행한 이차보전 대출 건수는 총 9만4811건.... 대출 규모는 2조3814억원....

3분기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0.65%…"역대 최저 수준" — 데일리안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0.06%p 감소한 0.65%로 집계... 부실채권 비율이 기업과 가계대출 등 전 분야에서 하락하며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
"저금리 속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상환부담이 줄어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카뱅 미니' 출시 한달만에 50만명 가입 — 동아일보

'카카오뱅크 미니'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가입 고객 50만 명을 넘어서....청소년 5명 중 1명이 카카오뱅크 '미니'를 이용하고 있는 셈....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미니 가입 고객의 빠른 성장세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

용두사미되는 문재인 케어…척추 MRI 급여화 1년 연기 — 한국경제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의 건강보험 적용이 1년 안팎 연기....문재인 케어 시행 과정에서 문덩이처럼 불어난 관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
"건보 적용 항목 확대는 어느 정부든 추진해왔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유독 빠르고 강하게 시행하며 각종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한화 이어 삼성생명도 중징계 받나… 금감원 제재심에 쏠린 눈 — 조선일보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 · 의결할 예정... 제재심의 주요 안건은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금감원은 지난달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삼성생명에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증선위, 라임 판매사 징계 결론 못내...추후 재논의 —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다음으로 미뤄...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
이날 증선위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이어가... 증권사 CEO와 기관에 대한 제재는 향후 금융위에서 다룰 예정...

'차명계좌 과세 불복' 증권사들…국세청 상대 1심 승소 — 중앙일보

20곳 증권사가 차명계좌에 대해 고율 과세를 부과한 국세청 지침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
법원은 실질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자가 주민등록상 본인 이름으로 거래했다면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